



상악 마그네틱 오버덴처와 하악 임플랜트지지 고정성 보철 치료 증례

강 경 희*, 최 대 균, 권 금 록, 이 성 복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해 잔존 치아를 보존하여 보철 수복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수 치아의 발거가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한 악궁에서 모든 치아를 발거하여 무치악 보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구강 환경과 치아 상실에 따른 심리적인 실망감 등으로 총의치 장착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치악의 골 상태, 환자의 희망,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고정성 보철물 제작을 고려해 볼만 하다. 특히 하악에서는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많고, 상악과는 달리 비교적 골의 상태는 유리하여, implant supported prosthesis를 임상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mplant supported prosthesis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하악의 3차원적 구조의 특성과, 다수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과 위치에 따른 생역학적인 구조, 그리고,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있어 각 단계별 오차, 보철 디자인과 재료의 특성, 그 밖의 여러 조건이 적절하지 못 할 때, 임플란트 매식 주위에 과도한 stress를 주게 되어 임상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더구나, 무치악 환자들은 틀니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므로 임상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환자 자신은 물론 치과 의사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철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앞서 말한 문제점의 원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는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54세 남자 환자로 상악은 좌우 견치만을 남기고 전악 발치 시행 후 좌우 견치에 root만을 이용한 magnetic overdenture를 하악 또한 전악 발치 후 #37, #36, #34, #33, #43, #44, #46, #47 부위에 8개의 ITI 임플란트를 식립 한 후 implant supported prosthesis로 수복하였다. 발치는 양악 모두 하루에 시행하였고, 발치 직후 양악 모두 removable immediate denture type 으로 통상적인 수복하였다. 그 사이에 상악 좌우 견치는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 발치 후 약 2개월 뒤 하악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시 보철물을 고정성으로 바꿔주기 위해 TPI를 6개 식립하였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시 계획 단계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dental CT를 촬영하여 이를 분석하여 수술을 시행 하였다. 식립 수술 전, 처음에 수복해준 하악 removable immediate denture를 복제하여 만들어 놓은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술 당일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수복해주었다. 보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임플란트 수복 후 약 3개월 뒤에 최종 보철물 장착하였다.